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 추진

자동차 내장재가공·금형 및 생산기술·에너지신산업 3개 과정 70명 선발 수요자 중심 교육 중

전북도는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 3개 과정을 개설해 도내 미취업자 취업지원과 기업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훈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6년까지 직업능력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기술인력양성을 통해 577명의 취업인원을 배출해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올해는 3개 교육·훈련기관(ECC)융합 섬유연구원(익산), 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전주)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70명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도내 산업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도내 맞춤형인력 확보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각 교육·훈련기관은 지난 4월부터 교육생모집 홍보를 시작으로 70명의 교육생을 최종 선발하여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CC융합섬유연구원은 자동차 내장재가공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해 자동차 시트 및 섬유봉제 전문 인력



마을기업고도화사업 지원증서 전달식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7년도 마을기업고도화사업 지원증서 전달식이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김중록 전북마을기업협의회장과 선정된 마을기업 대표

양성을 통해, 관련 기업에 맞춤형 인력 공급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뿌리분야 금형 및 생산기술 전문인력양성과정을 개설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금형부품설계 및 생산기술 분야 실무인력을 양성하며,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은 에너지신

산업(ESS)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설비 및 에너지변환 등 전문기술의 습득을 통해 산업현장기술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은 직업능력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시작으로 6개월 간 진행되며, 감사장과 교육생은 취업에 향한 열의를 가지고 교육이 끝날 때까지 도내 관련 기업이 원하는 인력

을 양성에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이들이 도와 교육·훈련기관 간 인력양성 협업 시스템을 경험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 삼락농정 장터' 12~13일 운영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전북도는 농협전북본부와 함께 지난 4월 20일~22일에 이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삼락농정 장터'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운영한다.

이번 '삼락농정 장터'는 20개 부스에 도내 4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마을상품, 6차산업 인증품 및 로컬푸드 농산

물을 유통단계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시중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삼락농정 장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4~6월, 9~10월 격주 금~토에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재용 기자

도, 청년정책포럼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전북도 청년정책 발굴 및 자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제2기 청년정책포럼 전체회의가 10일 개최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각 분과에서 제안한 청년정책과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들의 고민, 건의사항 등의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인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청년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정책방향의 의견을 듣고, 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청년 WEEK지역축제 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 하는 등 상반기 청년포럼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2월 17일 출범한 청년정책포럼은 월2회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4개 분과(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교육)별 논의를 통해 청년정책 제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정책을 도출하고 제안된 내용의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

육이 진행됐으며,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하반기까지 취합해 실무부서 검토 및 채택여부를 심사해 청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정책포럼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소통협의체로 상·하반기 전체회의를 통해 참신한 청년정책 발굴사항을 점검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전북형 청년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올해는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해로, 청년기본조례가 공포돼 시행중"이라며, "청년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종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부지, 교육별 논의를 통해 청년정책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정책기본계획은 분야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마무리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김은영 후보 당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영(49)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 마선거구에 출마한 김 후보는 3만1902표(61.62%)를 얻어 1만9871표(38.38%)에 그친 국민의당 김철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의원은 "오늘의 승리는 저 김은영만의 승리가 아니라 상식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열원하는 시민 모두의 승리"라면서 "제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열원하는 개혁과 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제라이온스356-C지구 직능부총재, 전주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효신티벤티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방문의 해, 3500만명 유치 민관 협력 강화

도, '전담여행사' 6곳과 간담회·B2B 마케팅 강화 등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도가 3,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여행사 및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역사문화와 체험관광을 묶은 수하여행 단체관광객 유치상품과 열차와 순환버스를 이용한 자유여행 상품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3월 지정된 '전담여행사'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일 전북도는 전담여행사 6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라북도 전담여행사'는 국내관광객 유치여행사(테마캠프여행사, 여행스케치, 아름여행사) 3개사와 외국인관광객 유치여행사(한그루여행사, 프

리엄패스 인터내셔널투어, 소리아행기획) 3개사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3,153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전북에 유치했다.

전북도는 또한 올해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민간여행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정보 제공은 물론, 여행업협회 주관의 행사 참여 등 B2B 마케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여행사와 관련 업계로 구성돼 있는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관광 트래블마트'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날 '전담여행사'와의 간

담회 후, 한국여행업협회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여행업협회는 6월 22일부터 이틀간 개최예정인 '2017 전라북도 관광 트래블마트'에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도는 전주한옥마을 한옥체험, 농촌체험 공적여행, 스포츠 관광 등 특수 목적관광단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 관광업계, 태권도원 및 전북현대 모터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을 계획이다.

유홍기 관광총괄과장은 "관광은 민간의 역할이 커 여행사 및 관광업계,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긴밀한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교육 개혁에 협력하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새 정부 출범 성명을 내 "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교육 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는 '교육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교육 개혁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새 대통령은 공교육의 국가 책임,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개

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 개혁 통한 '교육 혁명'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 혁명'은 올해 초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했던 '교육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개혁 과제'와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는 제안한 수용한 대통령에게 감사의 전한다"며 "새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정 과제의 핵심을 교육 개혁에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들도 새 대통령과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의 협력과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